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 - 파키스탄 핵무기 폐일 세이프 대화

2025년 3월 12일

회의 요약

개요

» 2025년 3월 12일, 라호르대학교 안보·전략·정책연구센터(CSSPR),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 핵 위협 이니셔티브(NTI)는 온라인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여 미국과 파키스탄의 전직 관계자 및 전문가 대표단을 한자리에 모았다. "2025년 글로벌 전략적 안정성, 핵 안보 및 위험감소 이슈: 진화하는 위협과 폐일 세이프 검토 개념"이라는 제목의 이 워크숍은 핵무기의 무단, 우발적 사용 또는 실수에 의한 사용을 방지하는 폐일세이프를 평가하는 핵무기 폐일 세이프 검토 과정을 포함하여 핵 위협을 검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워크숍은 핵 위협 이니셔티브(NTI)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가 수행하는 폐일 세이프 조치에 관한 광범위한 지역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 회의의 목적은 특히 파키스탄의 관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확전을 포함한 현대 핵 위협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논의는 국가 핵 위협 감소 조치와 양자 및 다자 폐일 세이프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국방부가 의뢰한 1990~1992년 검토 및 2021년 미 의회가 승인한 최근 검토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독립적" 핵무기 폐일 세이프 검토의 목적과 장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다.

» 참석자들은 이러한 폐일 세이프 검토의 안보적 이점, 모든 핵보유국이 정기적으로 이러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 이러한 검토는 협상, 조약 또는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검토가 결과에 대한 외부 투명성 약속을 반드시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해 솔직하게 탐구했다. 결과나 조치의 공유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전적으로 각국의 재량에 달려 있었다. 파키스탄 참석자들은 또한 폐일 세이프 조치의 신뢰성은 양자 또는 다자 조치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참석자 논의 사항

» 핵 위협은 핵보유국 간 전략적 대화의 부재와 글로벌 군비통제 및 위험감소 구조의 약화로 인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폐일 세이프 검토는 우발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발사 위험을 줄이고 이를 위한 국가적 약속을 재확인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만으로는 UN 상임이사국,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 효과적인 전략적 대화 및 국제 군비통제와 위험감소 의제를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대체할 수 없다.

» 더 많은 핵보유국이 페일 세이프 검토를 수행함에 따라, 각국 지도자들은 검토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정 위험이 다른 핵보유국들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 전문가들은 핵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간섭의 증가하는 위협을 공유 가능한 위험으로 강조했으며, 이는 글로벌 사이버-핵 불공격 협정을 향한 새로운 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 파키스탄 전문가들은 또한 신흥 지역 핵무장 해군 전력과 관련된 페일 세이프 우려를 강조했다. 따라서 핵무기 페일 세이프 검토는 여전히 전략적 위험감소 대화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모든 핵보유국은 고유한 핵 전력 의사결정, 관리 및 보안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페일 세이프 검토가 반드시 미국 검토의 설계를 복제할 필요는 없다. 참석자들은 여전히 국가 간 페일 세이프에 지침이 되어야 할 일반 원칙들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었다.

- 현업 정책입안자 및 기타 국가 핵 기업 체계 인력을 페일 세이프 검토팀 구성원으로 겸직시키지 말 것을 제안한 미국 참석자들의 제안에 대하여 : 현업 관계자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일상적 관리 및 실행에 집중하며, 핵 기업 체계의 한 요소(예: 군 부대 또는 핵 과학 연구소) 내에서만 이러한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운영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퇴역 정책입안자, 핵 및 국방 관계자, 그리고/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페일 세이프 검토팀은 요소 간 잠재적 접합 문제를 포함하여 전체 기업 체계에 대한 전체론적이고 장기적이며 독립적인 관점을 채택하는 데 더 적합할 것이다.
- 검토가 자신들의 업무를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점에 대해 핵 기업 체계 전반의 동의를 확보할 것을 촉구한 미국 참석자들의 요청 : 검토의 효과성은 검토 관계자들이 핵 기업 체계를 구성하는 조직들과 함께 그리고 조직 내에서 갖는 접근성과 투명성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다. 검토 관계자들은 잠재적 및 신흥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징벌적 조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공유된 집단 목표로서 핵무기고의 안보를 더 잘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조직들이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직들은 잠재적인 기술적 및 기타 취약성에 대한 선견지명 있는 검토가 자신들의 업무를 알리고 강화할 기회라는 사실을 환영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는 검토 과정과 결과가 고도로 비밀화된 방식으로 수행되고 보관될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 핵 기업 체계 전반의 동의 확보 필요성을 바탕으로, 파키스탄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페일 세이프 검토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원칙 간의 상호작용과 내재된 긴장 수준을 지적했다.

- 비밀성: 검토 절차 및 결과의 기밀적 성격과 관련됨.
- 취약성: 핵 기업 체계의 가능한 취약성을 식별하려는 검토의 목표와, 협력적 위험감소를 촉진하기 위해 자체 페일 세이프 검토를 수행한 다른 핵보유국과 결과를 공유할 가능성 모두에서 지적되며, 이러한 문제들이 국제적 조치를 통해 감소되거나 제거되기보다는 악용될 위험이 있음.
- 투명성: 개혁이 필요한 우려 영역을 드러내기 위한 검토 직원들 간의 투명성을 말함. 이 원칙은 결과가 전적으로 기밀로 남아 있을 경우 페일 세이프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국가들에게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 이에 대해 미국 참석자들은 각국 정부가 페일 세이프 검토 설계, 실행 및 후속 정책에서 이러한 원칙들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단독 재량권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국가들이 다른 핵보유국과 결과를 공유하고 싶어할 것인지와, 심지어 검토 완료의 세부사항까지 포함되었다.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겸직 금지와 동의 확보라는 두 가지 지침을 여전히 제안하면서도, 국가가 이러한 지침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했다.

» 파키스탄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페일 세이프 조치/신뢰구축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핵 위협을 재래식 억지에서 핵 억지까지의 연속체로 평가했고, 사이버 및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 및 파괴적 기술이 제기하는 위협을 포함하도록 이러한 조치의 범위를 확대했다.

결론

» 파키스탄과 미국의 전직 관계자 및 전문가 간 대화는 매우 가치 있었다. 양측은 페일 세이프 검토의 논리와 결과를 탐구하고 설명했다. 더 광범위하게는, 이번 대화는 서로의 진화하는 핵 위협 인식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게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숍이 이 문제에 대한 향후 참여를 위한 유익한 기반을 형성했다는 데 동의했다.